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7/28℃ 목포 18/24℃ 여수 19/25℃

단기 4342년 (음력 7월 2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73호 1판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김치축제 예정대로 치른다

광주시, 국제공연예술제 등 9개 행사 정상 개최

전남 축제 재추진 관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무더기 연기·취소됐던 광주·전남 지역 축제 상당수가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14일 축소해 치르기로 했던 김치문화축제, 국제공연예술제 등 9개 행사를 정상 개최키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일제히 행사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방역체계 점검과 함께 축제·행사개최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운 뒤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상 개최되는 행사는 ▲광주김치문화축제(10월23~11월1일) ▲국제실버박람회(11월26~28일) ▲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10월17일~18일) ▲국제공연예술제(10월20~31일) ▲전국기능경기대회(9월22~28일) ▲제2회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10월9~10일) ▲제5회 정율성국제음악제(10월15~16일) ▲농업인 한마음대회(11월11일) ▲2009광주국제식품산업전(11월12일~15일) 등이다.

연기 결정된 행사는 광주평생 학습축제, 2009고싸움놀이,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등 3개이며, 규모를 줄여 치러지는 행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39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등 4개다.

반면, 취소된 행사는 ▲광주 만화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 ▲국제광산업전시회 ▲2009광주과학축전 ▲2009 광주국제 자동차 로봇전 등 4개다.

시가 이같이 방침을 정하자 광주시 동구청도 충장축제의 정상 개최를 15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북구도 국화전시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양 전어축제를 비롯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나주 영산강 문화축제 ▲순천만 갈대 축제 ▲지리산 피아골 단풍 축제 ▲보성소리 축제 등의 재추진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행사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행사장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제기능올림픽 우승 주역 … 한국폴리텍V대학 3인방 스토리

최고가 되고 싶었다 20개월간 단 하루만 쉬었다 세계가 경의를 표했다. 우리는 마이스터

"입학 후 20개월 동안 단 하루 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물론 쉽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기술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

한국이 최근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스위스와 일본을 가뿐히 제치고 우승, '기능 강국'의 역사를 재확인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금형학과 2학년 김형준(여수공고 출신)·황태영·임중승(광주공고 출신)씨.

2년제 기능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금메달을 따낸 이들에겐 당당함과 자부심이 물씬 풍겼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거나 유학 준비를 하는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도,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의대, 법대 다니는 친구들도 하나도 부럽지 않다.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통합제조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한국폴리텍 V 대학 광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금형학과 2학년 김형준·황태영·임중승(왼쪽부터) 학생과 안상수 교수가 14일 교내 환영식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金메달 김형준·황태영·임중승씨

기술도 효도도 진정한 '국가대표'

고교 시절 한때 공부를 등한시 해 인문계 대신 택한 길이었고, 홀로 사는 어머니를 일찍 부양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젠 한 점의 후회도 없고, 새로운 길에 대한 희망만이 있을 뿐이다.

기능 국가대표인 김형준씨는 최근에 개봉된 영화 '국가대표'의 주인공처럼 홀로 사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 위해 기능인의 길을 택했다. 임중승씨도 단칸 셋방, 그것도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에 사시는 부모님에게 예쁜 아파트를 사드리기 위해 기능대학에 입학했다고 한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미래보다는 가족의 생활을 고려해 기능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이젠 세계 정상에 오른 국가대표로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출전한 종목은 통합제조(태양열 및 운동기구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직종으로 컴퓨터 응용기계 및 응용설계, 금속, 전기·전자 기술 등이 집약된 분야이다.

출품작은 추적식 태양열전지판인 태양광 크랙커과 자전거 원리를 이용한 동력발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장치다.

경연 시간은 총 22시간으로 제한시간 내에 출품작을 완성해야 하며 10시간 이내 조기완성시에는 가산점이 부과된다. 최종적으로는 완성도와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된다.

국가대표들은 10개 참가국 중 가장 빠른 10시간 만에 출품작을 완성했으며, 제품 이용 편리성 및 에너지 효율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00점 만점에 98.5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나머지 국가들 가운데 20시간 이내에 출품작을 완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2등인 호주도 85점 득점에 불과했다.

이들 3인이 발군을 능력을 보인 데에는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뼈를 깎는 각오와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지도교수 안상수 교수와 함께 올림픽을 목표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일주일에 2~3일은 기본적으로 실습실에서 날을 샜다. 토, 일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을 했다. 힘들었지만 불평을 하거나 일탈을 하는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지난 설날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본 것이 유일한 휴식이자 귀가였다.

젊음을 즐길 시기에 2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그들, 일반인은 상상키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냈지만 자신이 택한 길이기에 힘들지 않았다는 그들은 진정한 국가대표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지애 '파이널 퀸'

LPGA 아칸소챔피언십 우승 … 시즌 3승

함평골프고 출신 프로골퍼 신지애(사진·21·미래에셋)가 또 극적인 역전샷을 날려 '파이널 퀸'의 명성을 이었다. 〈관련기사 18면〉

신지애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골프장(파71·6천274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P&G뷰티 NW아칸소챔피언십 최종일 3라운드에서 무려 7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쳐 최종합계 9언더파 204타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신지애는 올해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와 6월 웨그먼스 LPGA에 이어 시즌 3승을 거두면서 LPGA 비회원이던 지난 시즌 3승을 포함해 통산 6승째를 기록했다.

또한 오초아(2승)를 제치고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선 신지애는 시즌 우승 상금(149만달러)과 올해의 선수 포인트(127점)에서도 1위로 우뚝 서 신인왕·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7타나 뒤져 우승권에서 벗어나 보였던 신지애는 3라운드에서 전반 버디 2개, 후반 버디 5개의 신들린 샷을 구사하며 역전드라마를 펼쳤다. 시즌 첫 승이었던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도 3라운드까지 선두에 6타 뒤져 있다가 역전에 성공했던 신지애는 '파이널 퀸'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한 셈이 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재래식
청국장/된장/조선장/청국된장
가정용·업소용 판매
국내산 100%
山水土風
은 정직합니다.
소금: 신안 천일염 / 콩: 농기 계약재배
소비자 (061)381-9893
상담실 010-6586-0001
•토종건강음식점 운암본점 성업중•
•체험장 문의 상담 환영•

변호사개업인사
변호사 신상규 올림